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영철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마크 로(Mark Roe) 교수는 1950~70년대의 미국 대기업 특징을 '약한 소유자, 강한 경영자'로 요약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 물결이 일어나면서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제 월가의 금융자본은 기업의 장기내재가치가 좋은데도 주가가 낮은 기업을 인수해 단기이익을 높이는 구조재편으로 주가를 올린 후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대리인비용 이론은 경영자가 주주 이익에 충실하

면 만사형통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자 주가는 5배 가까이 올랐지만 투자를 저하, 단기이익성 위주 경영, 비정규직 확대, 불평

등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지배구조를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로 좁게 보는 대리인비용 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론은 기업지배구조를 지배주주, 외부소액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하청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문제로 보며, 주주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대리인비용 이론은 의도한 것인 아닌데 주주가 주인(principal)이고, 경영자가 대리인(agent)이라는 주주자본주의 이념을 주입한다.

대리인비용 이론에서 주주가 주인이라고 보는 근거는 잔여소득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주주만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로자,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른 기업에서는 활용하기 힘든 기업특수숙련이 중요해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될수록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점점 커진다. 주주 권한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주주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주식유통시장이 발달한 결과 주주는 기업 이해관계자들 중 가장 쉽게 기업을 떠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가장 낮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한다면 기업의 장기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개인기업은 기업가의 사유재산이지만, 공개기업이 되면 주주가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공개기업 경영자가 경영목표를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할 수도 있다.

미국 항공사 중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종업원이 첫째이며, 고객이 둘째, 주주가 셋째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 제6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상의 회장 선거 언제까지 미룰진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또다시 다음주로 미뤄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3개월 가까이 계속돼온 회장 공백사태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상의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장 후보자인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과 이승기 상임의원 간 합의추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광주상의는 지금 해야할 일이 산더미 같다. 당장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모아 대선정국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서 상의가 회장 공백으로 장기간 파행만을 거듭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빛이진 상공의원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화합을 통해 지역과 상의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회장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다.

광주상의는 특등 인물이나 의원의 전 유물이 아니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민간단체다.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자

'희망 2008 나눔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한 이웃돕기성금 모금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바쁜 일상으로 선행을 베풀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최근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NGO 칼럼

김종운



어김없이 12월이 되면 거리와 지하철역에는 '사랑의 온도계'와 '자선 냄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은 사회지도층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성숙한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와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왕과 귀족들은 투철한 도덕의식을 기반으로 공공공사와 헌신, 그리고 기부와 헌납을 통한 사회 환원에 힘썼다고 한다.

최근 우리는 서로 상반된 기사 내용을 접하게 된다. 어느 대선 후보가 탈세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은 수백억의 돈을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두 기부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이와는 사뭇 대조적

비하곤 한다. 그들은 어느 유명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사회의 지도층이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은 사회지도층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성숙한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와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왕과 귀족들은 투철한 도덕의식을 기반으로 공공공사와 헌신, 그리고 기부와 헌납을 통한 사회 환원에 힘썼다고 한다.

행복과 감사의 조건

로 경북 문경에 사는 77세의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 수년간 200여 만원을 기부한 기사를 보면서 가슴 한 편이 저려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한다.

이러한 자발성의 실현이 존재했던 것이다.

매칠 후면 인류구원을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

수백여의 기증 약속과 상반되는 그 할머니의 기부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와 숨겨져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

더욱 바라는 것은 12명의 대선 후보들을 위시한 수위 이 땅에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도를 지극히 소박한 평범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눔수록 더욱 자기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한다.

인간의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물질적 풍요와 권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장>

아이들 체형·발 성장에 맞춰 의류·신발도 대형 나왔으면

딸과 함께 구두를 사러 갔다가 헛걸음을 했다. 딸의 발 사이즈가 255mm인데 그만큼 여성구두가 백화점은 물론 할인점과 시장에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즈가 대체로 220에서 240정도"라고 이상의 큰 구두는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은 양육상태가 좋아 체형이 커지고 덩달아 발 사이즈도 아주 커졌다.

매일 발굽되는 각종 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홈쇼핑, 카드회사 등에서 날발하고 있는 광고 전단지 위편 동봉행위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오세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호랑이, 너 풀 먹었지



풀밭에 앉아있는 호랑이, 야생에서는 무척 보기 힘들다.

하지만 멧돼지가 호랑이 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호랑이 낚새가 스며든 곳은 오히려 초식 동물들에겐 스트레스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원 옆 초식동물들이 모여있는 사육공간과 차이를 알 수 있다.

동물도 편식을 한다. 편식 정도는 육식동물 쪽이 훨씬 심하다.

'양식' 풀보다 '자연산' 풀이 훨씬 좋지 않을까. 동물들이 여름에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은근히 자연산 풀이 무성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가끔 호랑이 풀 속에는 다량의 소화되지 않은 풀 찌꺼기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가끔 호랑이와 초식 동물들의 공간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쓸모 없는 광고물, 요금고지서와 동봉 말아야

각종 요금고지서가 배달되면서 고지서 발급 회사마다 앞다투어 광고 전단지를 발송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이용자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나이 든 노인들만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것이 요금고지서인지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광고 전단지로 착각, 그냥 버려지기도 한다.

매일 발굽되는 각종 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홈쇼핑, 카드회사 등에서 날발하고 있는 광고 전단지의 우편 동봉행위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無 等 鼓

세계 최고수준의 파워와 테크닉을 자랑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는 매 경기가 전경이다.

독 영입설로 알려진 마이클 매카시 감독도 크게 불었다.

지난 199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의 캡틴 로이 킨은 경기중 상대팀 앞 피 힐란드로부터 태클을 당했다.

있는 킨은 최근 소속 팀의 공격수 앤서니 스톡스의 습진 출입에 대해 주의를 줬다.

프로와 자기관리



제외시킨, 화끈한 크리스마스 '섹스파티'를 위해 미녀 100명을 엄선해 놓고 소속팀 동료 25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최근 맨유의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가 오는 17일 아내와 애인을 와 공중물을 다룬다.

최근 축구와 관련 메시에 엄격해 잡 못하던 동료들 감독이든 가리지 않고 대적같은 선배 킨은 뒤라할지 궁금하

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Table with 2 columns: Light (光) and Kwangju Ilbo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for the newspaper.